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나 된 광주



임 다문 총리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왼쪽 두번째부터)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가 굳게 입을 다문 채 합창단을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5·18 36주년 기념식...유족회 등 오월 3단체 4년 만에 참석
황교안 총리·정의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 총집결
박승춘 보훈처장, 유족들 거센 항의로 기념식 행사장서 쫓겨나

▶관련기사 2·3·4·5면

유가족 등 5월 단체가 4년만에 정부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올해 5·18 기념식은 하나가 됐다.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을 고집했지만, 참석자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제창했다.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정부 주요 인사와 5·18

희생자 유족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현기환 청와대 정부수석의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권영진 대구

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도 당선인을 비롯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이날 기념식에 총집결했다.
새누리당에선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기념사,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황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룬 분수령이 됐다"며 "민주화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5·18정신을 대화합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와 광주시민, 여야 정치권의 제창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합창으로 불렀지만, 정부 대표를 뺀 참석자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불렀다. 여권의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제창에 동참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해 갈등을 빚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5·18 유족들의 거센 항의로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보훈처장이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유족과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브래들리 마틴 등 외신기자들도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아권의 대권 잠룡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도 참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미래 전략산업 '드론'이 뜬다

전남의 미래 성장 산업인 고효율의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

정부, 신산업 규제 대폭 완화
산불 진화·'택배 드론' 활용
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드론·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

다. 드론산업은 전남도의 주력 사업 중 하나다.
고흥군은 전남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선정된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전국 27개 규제프리존 사업에서 드론산업 규제프리존에 선정됐으며, 현재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드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업

종·임지 규제 특례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이 같이 드론산업 규제가 풀릴 경우 드론 사업 범위가 전면 확대하면서 드론 택배나 드론 광고 등 다양한 신산업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고흥에서 열린 드론 시범사업 시연회에서 산불감시·진화, 정밀 비행 시범과 원거리 감시기술, 조난수색 후 구호물

품 수송·투하 등 다양한 시범이 선보였다.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이 가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중행기자 golee@·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연정은 없다”

안철수 대표 광주서 밝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8일 광주지역 언론사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없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누리당과의 연정론에 대해 “새누리당과는 정체성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새누리당에서 합리적 보수주의 성향 인사가 온다면 받아들일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의 이날 발언은 연정론과 관련한 공식적인 첫 언급이다. 최근 박지원 원내대표와 안 대표의 최측근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과의 연정 가능성이 제기, 호남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무분별한 당내 연정 논의에 췌기를 바랬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됐다.
안 대표는 간담회에서 “대선에서 안 대표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실’에 대한 질문에는 “새누리당은 절대 안 간다. 비호남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동석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절대 안가십니다. 가시면 떨어집니다”고 거듭 말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한달 전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민이 큰 격려의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숙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개혁세력을 모아 정권교체,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로 일대일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2017대선 때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자구도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40% 콘크리트 지지율을 깨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힘들고 국민의당만이 외연 확장을 통해 콘크리트 지지를 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6 내가슴愛약속

내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 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